

뉴제주일보

청렴, 부패와 반부패를 통해 본 고찰

청렴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 중의 하나이며 생활신조로서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 신뢰받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청렴은 부패를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계적인 반부패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부패란 '위임된 공적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역사가들은 로마제국을 포함해 세계사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멸망 원인으로 부패를 꼽고 있으며 현대에도 부패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OECD는 연간 부패로 인한 손실이 전 세계 총생산의 5%(2.6조 달러)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매년 1조2600억 달러가 뇌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더 이상 해프닝이나 스캔들처럼 우발적이고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시스템의 문제로 단지 뇌물이나 개인의 사적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 사회의 가치, 존립, 번영과 관련된 사회적 문



문성조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인 것이다.

따라서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는 처벌과 개선에 그치거나 오래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만 머물지 말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일까지 포함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전 세계 180개국 중 33위로 역대 최고 순위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청렴은 공직자로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패에 눈감지 않으며 입을 다물지 않아야 하며 투명성과 시민참여라는 반부패의 역량이 더해질 때 현재의 부패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패에 대한 예방과 처방인 동시에 역동적인 실천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

127 X 136 mm

청렴 위한 공직자의 노력



고 병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제주도가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20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유일무이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우수사례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부패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감찰반이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청렴기동 감찰반 '본딱 고라쭈썰'를 운영했다. 그리고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 공공기관 통합채용 내실화를 통한 채용비리차단, 예산·계약 등 정보공개 확대 등 불공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라는 내용이다.

이 결과를 들여다 볼 때 그동안 제주도 소속 공직사회가 촘촘하고 강화된 청렴 교육과 새로이 발굴되는 반부

패 개혁 정책 발굴, 공직자들이 느끼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조직내부의 엄격한 부패인식 개선 등이 청렴 위상을 드높이는데 얼마나 공직자들이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결과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외부청렴도는 성숙한 국·도민이 청렴도 측정으로 좋아진 반면, 공직내부에서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하락해 여전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이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심층분석 결과를 보면 적극행정, 공정, 감질 관행,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방식 및 환경변화로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2003년 2월 18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서 출발해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제 8차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행동강령의 변천사와 함께 공직사회도 적극행정, 공정, 감질 관행 근절 등으로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자부하게 된다.

복지와 청렴



임 광 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공정과 청렴, 공감과 관용은 사회적 변화의 중요 요소다. 공정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정서적인 합치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청렴은 너와 내가 잘남과 못남이

없이, 또 우월적 지위가 없이 사회구성원이 하나, 혹은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우받고 대우하는 것이 기본 요소다.

공감은 남을 관용으로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자기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즉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공감의 시작이고 끝이다. 관용은 남의 실수에 대해 비난보다는 관용으로 바라보는 사회, 남

의 행동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마음이다. 관용은 공감이라는 통로로 통한다. 공감은 청렴이라는 통로로 연결된다. 청렴은 공정이라는 통로와 연결된다. 또 궁극적으로 4개의 가치는 복지라는 가치와 고리처럼 연결된다. 공정, 청렴, 공감, 관용이 복지와 고리로 연결돼 행복지수가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만 들어질 것이다.

서귀포시는 사회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 높은 행복지수를 위해 복지의 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급자 지원을 통한 복지, 바우처 사업을 통한 복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복지, 의료급여를 통한 복지, 사회복지관 등 복지 시설 이용을 통한 공유와 복지. 다양한 복지 정책이 곧 삶의 힘이 되고, 서귀포시의 힘이 될 것이다. 서귀포시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또 복지의 힘을 더욱 강화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108 X 131 mm

양념의 기본 '소금' 그리고 '청렴'



김 현 석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양념은 음식의 맛을 돕기 위해 쓰는 재료이다. 양념의 기본은 소금이다.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결정체로 가장 기본이 되는 양념이다.

“어느 누가 나무 잎사귀와 채소 뿌리를 씹으며 표주박의 물 한 모금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는가. 어찌 달콤한 술과 기름진 고기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절은 “사람이 늘 채소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人常能咬菜根即百事可成)”라는 송나라 왕신민의 소학 구절에서 유래된다.

투명한 조직을 이끌고 깨끗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채소 뿌리를 씹듯이 음식 고유의 맛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행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음식이라고 한다면 조리사인 공직자가 소비자인 시민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맛있는 양념이 필요하다. 좋은 음식의 맛과 향기를 살리고 좋지 않은 맛과 향기를 상쇄하는 양념이 필요하다. 그 양념은 소금인 청렴이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청렴도가 전년 최하위 5등급에서 3등급 수직으로 상승한 2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고 순위를 획득했다.

2020년에 청렴이라는 소금으로 맛있게 음식을 조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2021년에도 꽃소금, 천일염 등 다양한 소금으로 맛있게 음식을 조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더 노력해야 한다.

청렴이야말로 공직 내부 깨끗한 문화 달성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주도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108 X 141 mm

매일 매일 청렴하소!



김 윤 영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하루를 바쁘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2021년 신축년소의 해에 “청렴하소”는 무슨 뜻일까?

2021년은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으니 벌써 햇수로 만 4년이 지나가고 있다. 시행령 등이 개정돼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 확대됐지만, 김영란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때나, 지금까지 법이 시행되는 단면을 살펴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패’라는 말도 있다. 청렴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국가 도덕성의 기본이며, 이를 근간으로 국민 정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

렴은 이미 그 자체로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2017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현저하다”라며 평가와 함께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우리들의 노력이 평가받고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정’과 ‘정의’가 충만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부패를 막는 법률이나 규정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청렴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사는 것’ 돼야 한다.

우리 모두 올해 신축년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맡은 바를 실천해 매일 청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08 X 141 mm

독자기고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섬' 제주는 많은 어려움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 속에서도 곳곳하게 '청정 제주'를 지켜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청정 제주'는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숨 쉬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사회 시스템까지 깨끗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건강한 의미의 '청정 제주'가 되기 위해서 '정법 제주'라는 단단한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다희

이런 의미에서 2020년 12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등급을 받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순위를 획득했다는 소식은 제주 공직자들은 물론 도민 전체에게 무척 기쁘고 자랑스러

설 연휴에도 청렴!

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이 '지속력'이다. 제주 공직자들과 도민 전체는 새해를 맞아 올해 '청렴'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청렴의 실천 의지를 철저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청:청정 제주는, 렬:염려마세요'의 이행시처법 한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대명절 설 연휴에도 모두가 부정부패와 청탁 없는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과 주변을 깨끗하고 단단하게 유지해 적당한 선에서 진정한 마음의 정(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는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고 했다. 제주도민 한 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청렴의식을 곳곳이 지켜 나간다면 우리 모두의 바람인 '청정 제주, 정법 제주'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라도서관 사서>

236 X 95 mm

코로나19, 비대면시대 청렴에 대해



한 옥 종
서귀포시 도시과

코로나19는 우리의 염원과 다르게 계속되고, 비대면은 우리생활의 전제 조건이 됐다. 식당 식사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 이용시간까지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배달'이 성행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배달의 민족'이 '배달'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애플리케이션의 발달과 만나지 못하는 지속은 기프트콘으로 마음을 배달시키고 있다. 다만 그 따뜻함 속에 청탁금지법은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명절에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금액을 조정했으나 정확한 규정보다 금액에 초점이 부각돼 잘못된 규정해석이

퍼져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국민들의 선물 주고받기에 대한 금액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다. 공직자와는 5만원 이하로만 선물(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이 가능하다.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역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 하에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다. 이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법에 위배되며, 상품권 등 유가증권 또한 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설 명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보내게 됐다. 우리 국민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민족이라 정을 나눌 수 없는 이번 설이 매우 아쉽겠지만 정을 빌미삼아 오고가는 정이 아니고 청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올 한해도 복 많이 받고 힘내자는 격려의 말을 전해 마음이 풍성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청렴이란 방패막 속에서



현수민
서귀포시
천지동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 된 지도 어언
1년이 됐다. 이럴
때일수록나는공직
자의 기본 덕목을
상기시키며,공무원
면접을 준비하고합
격했을 때의 그 당
창던 첫 마음, 초심
(初心)을 되새기고자 하는 데 그 중
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청렴
(淸廉)'의 덕목을 말하고 싶다.

과거, 유가의대표적인사상가이자
교육가인 '맹자(BC 372년~BC 289
년)'는 우리에게 '청렴'에 관한 명언
을 남겼다. "받아도 되고 받지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
지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용기를 손
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직에서 일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

해야 하는 말씀인 듯하다. 꼭 가져도
좋지 않을 것이라면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접어야 한다. 청렴함을 해치
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욕
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곧
행동은 떳떳해지는 법이다.

모든 공직자가 '나 하나쯤이야'라
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로 인해' 라는 생각을 대
신 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한다.

이제 곧 설날이다. 이쯤 되면 조용
히, 긴밀하게 가지각색의 청탁들이
공직자들을 긴장시킬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큰 청탁뿐
아니라 사소한 청탁이라도 정중히
거절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청탁금지
법, 그리고 청렴이란 방패막 속에 계
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대나무처럼
핏핏이, 그리고 묵묵히 대한민국의
푸른, 청렴의 단단한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108 X 131 mm

우리 마음속의 청렴이란



나의 의견

박원철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팀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청렴이란 과연 무엇일까?

일상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 오며 때로는 성취감을, 때로는 좌절감을 맛보지만 이 모두는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과제이자 명제이다. 하지만 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청렴'이라는 난제는 어떤 상황에 따라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사면초가에 빠져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는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의 부탁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청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잘 표출하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이 가장 의미 있다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청렴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렴이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청렴이 윤리적이고 도덕적 행동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가치 있는 규범 중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정직과 신뢰 속에서 청렴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사람은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반복적 행동을 통하여 삶의 척도를 배워 나간다. 청렴도 마찬가지다.

정직과 신뢰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표현하고 스스로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더 나은 청렴문화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청렴의 시스템화



권민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무원 면접 시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신뢰'라고 대답했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그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그 유효성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 신뢰를 쌓는 데 기본은 '청렴과 공평'이라고 했다. 청렴성과 공평성은 신뢰라는 집의 기둥이다.

그러면 고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쓰리꾼('소매치기'의 비표준어)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요즘 어린 친구들은 쓰리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도덕의식의 비약적 성장 덕분일까? 그보다는 도처의

CCTV와 첨단화된 금융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걸리게 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미 상당한 시스템이 구축돼 주어진 권한만큼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재량이 큰 업무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무조건 걸리게 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되는 것은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에게엔 청탁을 하지도 않고, 청탁을 받아도 거절하는데 큰 힘이 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음이 청탁을 하려는 쪽도 청탁을 받으려는 쪽도 힘 빠지게 한다.

"네가 말해봐. 네 말은 신뢰가 가니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인생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철저하게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 어려운 조작 요구를 받지 않고, 조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은 채, 저런 뿌듯한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내 앞으로 다가온 청렴



오 현 진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직자가 지켜야 할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중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청렴이다. 공직자들은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 초기에는 무엇이 청렴이라는 것인지,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인지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렇기에 공직 내부에서도 직원 청렴의식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홍보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제 청렴이라는 말에 한층 가까워졌다.

청렴 교육을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청심 편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복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가 없다”며 “욕망이 큰 자일수록 반드시 청렴해야 할 것이니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깊은 지혜를 가진 선비로서 청렴을 좌우명으로 삼고 빈욕을 경계하지 않는 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하지만 청렴이라는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평소 습관화가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눈앞의 유혹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배워야 미래를 제대로 가꿔 나갈 수 있듯, 과거 청렴했던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행적들을 돌아보는 것은 공직자의 길을 걸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청렴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좇지 않고 청렴함을 이롭게 여겨 세상을 바꾸고 신뢰와 명성이라는 큰 보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6 X 146 mm